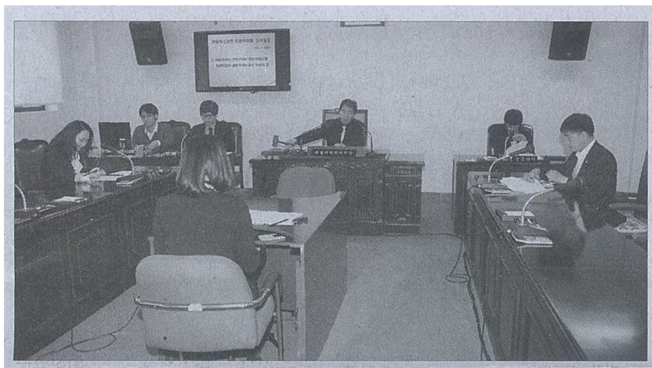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4월 20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민원특위가 지난 15일 박문수 위원장의 진행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있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20일 회의갖고 6개월간 활동 마무리

강북구의회가 구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이하 '민원특위')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 김영준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원특위는 15일 제7차 마지막 회의를 갖고 그동안 활동 결과를 평가한 뒤 활동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20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원특위는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 의결되어 2014년 10월30일부터 6개월간 활동하기로 하고 그동안 다수의 간담회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는 등 민원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민원특위는 강북구청에서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특위이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수유 마을시장 공영주차장 현장방문을 통해 공영주차장 시설물 전반에 걸쳐 장애인들의 체험시범을 통해 불편사항을 수집하고 시설보완 및 편의성 개선을 요구했으며, 미아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하는 다수민원에 대하여 메트로 측의 미진한 공사이행에 다시 한번 조속한 공사추진을 요청하여 세부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얻었다.

또 꿈의 숲 롯데캐슬 횡단보도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이용주민과의 협의 없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의견대립이 초래된 바,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공사측에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전설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월벽교 확장에 대한 주민이견에 대해서는 선형변경 공사가 완료된 만큼 곡선구간 완화를 위한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므로 교통체증 해소와 시야확보를 위해 위원회 안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수의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걸맞는 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업체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박문수 위원장은 "그동안 민원특위는 6개월이라는 활동기간 동안 구민의 민원 해결과 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3명의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해 활동해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제로 지역발전과 구민불편 해소를 위하는 곳에는 언제든 달려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